

조성호 전북대 교수, 농식품부 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수의대)가 2022년 가축방역 유공 정부 포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해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위원장 대한수의사회 국가제안동물감염병 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가축방역 관련한 다양한 정책 자문을 해온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호성 교수는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농장의 차단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장 단위의 수준에 맞는 차단방역 조치의 점검 및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며 "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신종 가축 전염병의 선제적인 방역 대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이진희 전주교대 교수,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전주교육대학교 이진희 교수(실과교육과)의 연구가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작상추의 건강 증진 생리 활성 화합물 축적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오존 처리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된 논문은 식물연구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학술지로 인정받는 국제저명 학술지 Frontiers in Plant Science(SCIE, IF 6.627)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완전하게 환경이 제어되는 인공광형 식물공장(수직농장)에서 단기간의 오존 처리가 작상추의 생육 및 항산화성 생리활성 화합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식물공장의 에너지 절감, 식물 품질 향상, 기계화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로 오존 처리의 가능성을 확인해 원예 작물의 고품질화를 위한 환경 조절 기술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희 교수는 "친환경 미래 농업의 교육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전주 교대 학생들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한빛 전주대 석사과정생, 카본 아이디어 '대상'

전주대학교 탄소융합공학과 김한빛 석사과정생(지도교수 홍성주)이 최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6회 국제탄소페스티벌·카본코리아(Carbon Korea) 2022 카본 아이디어 챌린지 대회(이하 카본 아이디어 도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드론을 제작해 비행 및 충격 실험 등 다양한 심사를 거쳐 최고의 탄소섬유 드론을 선정했다.

김한빛 석사과정생(팀장)과 팀 슈퍼스타(팀원: 김해중, 배상준, 이미영, 이하늘)는 탄소섬유 3D프린팅을 활용해 부품을 제작해 기존 탄소섬유보다 훨씬 가볍고 복잡한 형상을 후가공 없이 설계해 충격 및 비행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쿼드 드론과 hexa 드론의 구조를 파악해 모듈형 부품으로 상황에 따라 용도에 맞는 드론으로 변형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한빛 석사과정생은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자기 계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탄소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대 일반대학원 탄소융합공학과는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탄소복합재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북테크노파크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을 운영 중이다. /정은성 기자

'국민연금우리는행' 주거레은행 계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덕진구 공간 분야에서 우리는행(은행장 이원덕)과 주거레은행 계약을 27일 체결했다.

앞으로 주거레은행은 기금 운용자금 결제를 비롯해 국내·외 연금 지급, 연금보험료 수납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기간은 내년 3월 12일부터 3년간이며, 이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공단은 지난 8월 주거레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평가와 기술협상을 통해 우리는행을 주거레은행으로 최종 확정했다. /김영태 기자

“맞춤형 사회공헌사업 지속해 나갈 것”

건협 전북지부, 진안군보건소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특화차량 기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김민수,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진안군청 광장에서 '장애인특화차량 지정기부식'을 27일 개최했다.

건협 전북지부는 지역사회중생재활사업 활성화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특화차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첫 번째로 진안군 보건소 찾아가 지원했다.

특화차량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좁은 공간에서 운행이 편리한 소형차량 레이로 휠체어 슬로프, 고정벨트, 안전바 등 여러 안전 편의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기부식에는 김민수 건협 전북지부 본부장, 진준성 진안군수, 송미경 진안군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김민수 본부장은 "특화차량 지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다 앞으로도 건협 전북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순창군,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 가져

순창군은 겨울철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주민들을 위해 '겨울나기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27일 풍산면 소재 감식초 공장 부지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 김정생 산림조합장, 군 산림부서 산림조합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등 요리 행사는 갖지 않고 땀감 조제와 적재작업 등 땀감을 나눠주기 위한 작업으로 대신했다. 땀감은 순창군 산림조합에서 직영별채 사업지와 임도시설 사업장 등에서 모은 화목용 목재를 마련해 사용했다.

대상지는 읍·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홀로사는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중심으로 22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에는 1.5톤씩 총 33톤의 겨울나기 땀감을 전달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선정된 가정까지 직접 운반 전달해 추운 겨울철 온정을 나눴다.

김정생 조합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난방"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비 부담을 덜어주고 겨울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마련한 행사가 지난 2007년 시작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힘 없이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내년에는 조합원과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도 이달의 혁신주인공' ... 김주원 주무관 선정

전북도 정책기획관 김주원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도전 장관상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12월에는 11월까지 주인공으로 선정되지 못한 후보자 중 업무 공적도 등을 심사해 이달의 도전 장관상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이번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김주원 주무관은 새 정부의 재정 기초 전환과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상 첫 국가예산 9조원대 확보에 기여했다. 특히, 김 주무관은 국회심의 단계에서 정부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중점 대응사업(70여건)을 선별해 지역정착·시군·도의 전략적인 대응 등 주요사업 1,047억 원을 증액 반영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2022년에도 국가예산 8억9,368억원을 확보해 전라북도 신산업지도 구축과 미래 신성장산업 동력이 될 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달의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김주원 주무관은 "국가예산 확보는 전라북도 공무원의 수령인 것 같다"며, "쉽지 않은 상황에도 묵묵히 할 일을 해내는 동료들이 존경스럽고"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내년에도 열심히 준비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사업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향혜숙 정읍시의회 부의장, 위대한 100인 대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 향혜숙 부의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섯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2022 K-GLOBAL STAR 위대한 대한민국 100인 대상'에서 지역사회봉사발전공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등이 주관한 위대한 대한민국 100인 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향혜숙 부의장은 수상 소감으로 "지방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신장과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고, 의회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여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대변자 역할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새마을회지단, 뜨거운 사랑의연탄 나눔봉사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원석)는 전주새마을회지단, 이사, 새마을회원들이 모여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지난 28일 펼쳤다.

회원들은 37구에 연탄 1,200여장을 지원하고, 송천동 한 가정을 방문해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에 옮겼다고 전했다.

박창석 전주새마을회협의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새마을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작게나마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게 됐다. 작은 나눔이지만 마음을 담아 전달한 연탄으로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사회적 약자에 물품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 하이테크센터 노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장애인 이동지원 물품(삼바카 50대, 지팡이 100개)을 전주시에 27일 기부했다.

채병두 하이테크센터장은 "전주시 취약계층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고민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하 노조지회장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정성으로 기부활동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경제 위기 속에서 선톤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현대자동차 전주 하이테크센터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소외된 이웃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하이테크센터는 해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최아영 기자

전주비전대 김태훈씨, 방송통신진흥원장상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훈 씨가 국가자격시험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감사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27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김태훈 씨는 국가자격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 등 안전관리에 힘

써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훈 씨는 "지역의 인재가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해 능력을 키워나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가자격시험에 전주비전대학교가 최우수 시험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태훈 씨는 과거 전사적 산학협력혁신 및 IINC 3.0 사업운영 공로로 교육부장관상, 한국연구재단이사장상 등을 수상하는 등 전주비전대학교의 산학협력사업의 성과를 냈다. /정은성 기자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포근포근 희망상자' 전달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지부장 오이름)는 위기가정 청소년 여아 지원을 위해 1년 치 위생용품이 담긴 '포근포근 희망상자'를 전라북도 내 13개교 47명에게 지난 28일 전달했다.

포근포근 희망상자는 GS건설과 남춘재단이 함께하는 국내 위기가정 여아지원 사업으로, 위기가정 청소년 여아의 위생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여아 권리 신장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상자이다. 또 포근포근 희망상자는 생리대, 생리대 파우치, 온찜질팩, 스틱 비누 등 청소년 여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오이름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장은 "전라북도 내 위기가정 과 복지사각지대 가정의 여아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운데, 매 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에 앞장서준 GS건설·남춘재단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굿네이버스 전북지부는 나눔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사회개발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